

# 4

## 월의 사양관리

♣ 축산연구소

### 일반 사양관리



2006년을 시작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4분기 가 지났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목표했던 일들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시기이다. 봄이라고 하지만 낙농환경은 아직까지 겨울인 듯하다. 해결 해야 할 낙농현안들이 많은데 추진은 지지부진하고 답답하기만 하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된다. 3월부터 5월까지의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정기적인 소독과 목장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4월에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황사가 유입되는 시기이므로 가축의 건강과 방역에 신경을 써야할 시기이다. 마을 단위로 공동방역 계획을 수립·점검해 보고 매주

일정한 날자를 정하여 이웃과 공동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구제역 등 악성 전염병이 다시 이 땅에서 발생하는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금년에는 자급 조사료 생산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유희농경지를 확보하는데는 만전을 기한다. 시기적으로 청예사료를 확보하여 급여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주변의 청초를 수확하여 이용하되 청예사료를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 고창증 및 소화기 장애로 설사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7~10일간에 걸쳐 급여량을 서서히 증대시키며 사료 변경시 MUN(우유중 요소태 질소함량) 테스트를 실시하고 사료급여량을 변경한다.

### 사양관리



기온상승과 일조량의 증가로 인하여 발정과 수태 및 분만이 많이 이루어지는 번식계절이다. 통계적으로 4~5월경에 발정이 제일 많고 수태율이 높은 시기이므로 번식에 유의하고 기록부에 번식 상황을 꼭 기록한다. 특히 분만전·후 사양관리가 중요하다. 전환기 동안에 사료 섭취량을 최대화하는 것이 대사성 질병을 줄이는 핵심기술이다. 임신우의 BCS(신체충실

지수)가 3.7이상으로 과비한 경우 분만후에 식욕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체중의 1.5%를 섭취하지만 신체충실지수가 3.2~3.6로 적정 신체충실지수(BCS)를 유지한 경우에는 사료섭취량이 체중의 약 2.0%까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분만전 적정 BCS를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우사 특히 분만실의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개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해 주고, 분만

실은 깨끗한 깔짚을 깔아주어 생산된 송아지와 분만한 어미소가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태어난 송아지는 생후 1~2주 사이에 전기 제각기나 약품을 사용하여 제각을 실시한다. 산유량 증대에만 초점을 맞춘 사양관리 보다는 적정 산유량과 번식에 초점을 맞춘 적정 영양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분만후 비유초기 산유량에 증가에 따라 부족되는 에너지를 추가로 공급하여 체중

감소로 인한 번식장애 및 케토시스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한다. 그러나 비유초기에 부족한 에너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후사료 위주로 다량 급여할 경우 반추위 내 산도 하락으로 산독증 등 다른 질병이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여 적절한 조:농비가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TMR 급여농가의 경우 외부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사조를 깨끗이 청소하여 사료의 기호성을 잃지 않도록 해 준다.

## 방역 및 위생관리

체세포 관리는 농가수익과 직결된다. 같은 양의 우유를 생산하더라도 체세포수가 적은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여야만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 양질의 우유생산을 위한 수칙으로는 첫째, 착유전에 착유기의 압력과 맥동수를 항상 점검한다. 둘째, 유두세척 타올은 반드시 한 마리당 하나 이상을 사용한다. 세째, 유두세척을 실시한 후 마른 타올로 건조시킨 다음 1분 이내에 착유기를 부착한다. 넷째, 착유기 제거 후 즉시 유두침지를 반드시 해준다. 다섯째, 착유한 원유는 빠른 시간내에 냉각시킨다. 여섯째, 위생관리를 위해 유

방주위의 털을 정기적으로 깎아준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CMT나 체세포수 검사를 한다. 여덟째, 비타민 E, 베타케로틴 등을 정기적으로 급여한다. 아홉째, 유두 침지액은 매일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한다. 체세포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계절별, 시료채취 시간별, 비유단계별, 스트레스, 유전적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따라서 체세포는 미생물이나 유방염 등의 감염에 따라 그 수가 갑작스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체세포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잘 파악 대체하여 체세포수 증가에 의한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초지 및 사료작물

자급 조사료를 어떻게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경쟁력의 관건이다. 우수한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를 선정하기 위한 추파용 사료작물 및 목초종자 소요량을 신청 접수받고 있다. 필요한 소요량을 파악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옥수수 파종의 경우, 중부지방은 4월 15일~20일, 남부지방은 4월 5일~10일 파종적기이다. 연작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퇴비(ha당

50M/T)와 인산질비료(ha당 200kg)의 사용이 필요하다. 옥수수는 고온작물이므로 생육초기의 저온 상태 생육이 늦어지고 잡초의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제초제를 파종후 3일 이내에 골고루 살포하며 추후 필요시마다 제초한다. 봄 연맥 및 유채를 4월 상순까지는 ha당 유채 15kg, 연맥 120kg을 파종한다. ㉞